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	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	녹색에너지과장	김재웅	2133-3550
		에너지정책팀장	서한호	2133-3552
		담당자	장수	2133-3556
	기후환경정책과	기후환경정책과장	김정선	2133-3510
		환경협치팀장	신은철	2133-3528
		탄소중립실천팀장	정금자	2133-3660
	친환경건물과	친환경건물과장	최종하	2133-3590
		친환경건물정책팀장	이홍석	2133-3592
		민간건물효율화팀장	이경옥	2133-3575
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	매수 : 5매	관련 누리집	www.seoul.go.kr	

올여름 냉방비 부담 줄이려면...서울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

- ‘서울e(이)반하다’ 캠페인...가구당 하루 1kWh 줄이면 한 달 전기요금 10%↓효과
- 6월 ‘에너지서울 동행단(150명)’ 명동 등 현장 홍보...7월 제1회 전기절약 우수건물 챌린지(대회) 개최
- ‘서울에너지플러스’ 통해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...경로당 냉방기기 유지관리
- 시, BRP 규모 확대 등 에너지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병행

- 지난 16일 전기요금 5.3% 인상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, 서울시가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.
-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은 2020년 이후 매년 3%씩 증가하는 추세로, 올 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른 폭염까지 예고돼있어 과도한 냉방 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
< 여름철 에너지 절약 서울^e반하다 캠페인...가구당 1kWh 줄이기 등 >

- 서울시는 올여름 전기 절약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, 시민들이 쉽게 즐기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‘서울이(e) 반하다’를 추진한다.
 - ‘서울이(e) 반하다’는 “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”와 “서울에 반했다”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지난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됐다.

- 먼저, 가구당 ‘하루 1kWh 줄이기’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칙을 정하고, 시민 대상 홍보를 진행한다. 실천 수칙은 ▲ 실내 적정온도(26℃) 유지하기 ▲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▲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로 모두 실천하면 하루 1kWh, 한 달이면 전기 사용량의 10%(1년 약 10만원) 가량을 줄일 수 있다.

- 이를 위해 6월부터 150명 규모의 ‘에너지 서울 동행단’이 명동, 홍대, 강남역 등 주요 상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에너지절약 홍보에 나선다.
 - 에너지서울동행단은 6~8월 주요 상권 등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 자제 등 ‘서울e반하다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9~12월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고효율 간편시공을 돕는다.

- 이외에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‘2023 시원차림’ 캠페인과 온라인으로 에너지절약 다짐 및 실천을 인증하는 ‘제로서울 챌린지’를 진행한다.

- 또한 미래세대인 학생 100만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 교육을 진행한다.
 -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며 서울에너지드림센터, 기후에너지정보센터 등 환경교육 거점시설과 각 자치구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통해 맞춤형 에너지·환경교육을 실시한다.

- 특히 시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·남서울본부,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여름철 3개월간 매월 1회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. 전광판, 지하철, 버스, 공동주택 승강기(엘리베이터)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도 진행한다.
 - 또한 지상파, 신문,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기 절약 요령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생활 속 절전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 - 각 자치구도 개별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면서 매월 지역 중심 캠페인을 진행하며 에너지다소비건물 등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.

- 아울러 무더운 여름 물 한잔을 나눌수 있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도 지속 확대한다.
 - ‘오아시스 서울’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‘오아시스 서울’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이면 개인 컵을 지참 방문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.
 - 현재 카페·음식점 등 1,000여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하다. 서울시는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주민센터 등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< 전기 절약하면 인센티브(혜택) 주는 전기절약 우수건물 챌린지 >

- 서울시는 아울러 에너지다소비건물(2천TOE 이상) 450개소와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‘제1회 전기절약 우수건물 챌린지(대회)’를 진행한다.
 - 미국 환경보호국(EPA) 주관 ‘The battle of the buildings’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건물의 에너지 절약률을 평가하고 소속원들의 단합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챌린지(대회)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- 여름철 전기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기 절약률이 높은 건물을 선발하고 우수건물에는 서울특별시장 상장, 홍보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.
-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노력도 계속된다.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℃ 이상을 유지하고 조명·사무기기 전원 등을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.

<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, 경로당 등 냉방시설 유지관리로 에너지효율↑ >

- 서울시 핵심 정책 기조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. 서울에너지플러스(구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)는 기업·단체·시민의 후원을 받아 에너지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선풍기, 여름 이불, 냉방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 -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민 공모 및 서울시 시민 투표(엠보팅)를 통해 ‘서울에너지플러스’로 명칭을 변경했다.
 - 네이버 해피빈, 카카오 같이가치 등 온라인 모금과 함께 서울지역 어린이집과 협력해 가정 내 연계 소액 기부 캠페인도 진행한다.

- 올해 여름부터는 경로당, 노인·사회 복지센터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냉방기기 유지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.
 - 에어컨 실내·외기는 적절한 관리를 병행하면 전력의 17~27%까지 절약할 수 있다. 이에 시는 관련 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방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세균으로 인한 질병 예방도 도모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시는 에너지 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(BRP)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'23년 4월말 기준, 전년 동기간 대비 용자금액 16배(4억→71억), 용자 건수가 9배(34건→312건)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6월 중 예산(120억원)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100억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.
 - 또한 경로당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'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(SEMS)'도 여름철 집중적으로 추진해,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도울 예정이다.
 - 노후 저가주택 대상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강화한다. 공시가격 3억원 이하,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(소유자, 세입자 모두 가능)에 단열 창호(3등급 이상), 엘이디(LED)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를 설치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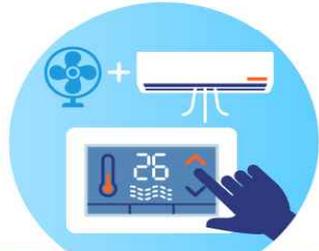
-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민, 기업, 소상공인 등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”라며 “적정온도 유지,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, 조명 끄기 등 작은 실천 몇 가지로 전기요금을 10%가량 줄일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말했다.

서울특별시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서울e 반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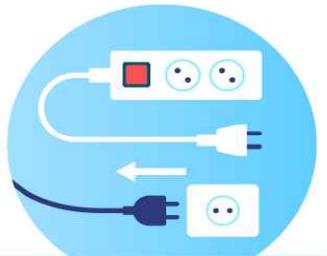
올여름, 서울e 쿨~하게 반할 수밖에 없는 5가지



**1 냉방온도 1°C 높이고
실내온도 26°C 유지**
에어컨·선풍기 함께 사용시
20~30% 절약



**2 사용하지 않는
조명 소등하기**
조명 5개 끄면
18% 절약



**3 사용하지 않는
플러그 뽑기**
플러그 OFF시
3.2% 절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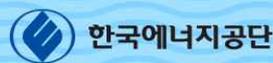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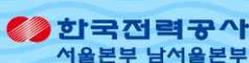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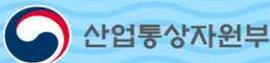


**4 시원차림으로
쿨맵시 실천**
시원차림 실천하면
최대 **10%** 절약



**5 문열고
냉방영업 자제**
문닫고 냉방시
66% 절약

서울시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루1kWh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합니다



함께해요! 하루 1kWh 줄이기!

줄인 1kWh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


전기차 5.5km 운행
(EV6스탠다드 기준)



컴퓨터 10시간 사용
(사용전력 100W기준)



스마트폰 50대 충전
(5V/20A 충전기 기준)



생명유지장치 2시간 가동
(인공호흡기 450W기준)



매일 1kWh를 줄인다면, 연간 93,480원을 아낄 수 있어요!
(※가구당 월평균 사용량, 주택용 저압요금 기준)

냉방기는 스마트하게 사용해요!



적정 실내 냉방온도는 26°C로 설정!



실외기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



필터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하기

TIP

인버터형 에어컨

꺾다 꺾다 하기보다는, 계속 틀어두는 것이 절약!
(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는 것 보다, 12시간 내내 틀는 것이 35% 절감)

정속형 에어컨

세게 틀었다 꺾다를 약 2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절약!
(12시간 내내 틀는 것 보다,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는 것이 70% 절감)

*인버터형/정속형은 모델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! (2010년 이후 생산된 신형 에어컨은 인버터형인 경우가 많은데, 자세한 건 모델명을 참고 해 주세요)

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참여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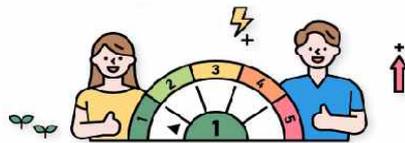


에코마일리지는 전기, 수도 등 에너지를 5%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1~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
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"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" 사이트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검색창에서 를 검색해 주세요!

한전 에너지캐쉬백 프로그램 참여하기



에너지캐쉬백이란, 전기절약에 성공하는 경우 전기요금차감 등의 방식으로 돈을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.(kWh당 최대 100원)

주택용 전기사용자(아파트 또는 개별가정)라면 참여가 가능하고, 한국전력 EN:TER 사이트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검색창에서 을 검색

또는 한전 고객센터(☎123)로 문의 해주세요!